





# 5개년 실천 계획안, 처음 선보여

서울 총학생회, 용인이전 계획으로 판단해 거부권 행사할 듯

외대발전 5개년 실천계획안(실천안)이 대학당국측 시안으로 첫 선을 보였다. △학문의 정통적 탐구 △정보와 지식의 능동적 창출 △국제적 개방성의 추구 라는 2년내외 외대 교육의 이념 하에서 외대발전의 중점 목표로 △교육의 질적 우수성과 학수성 확보 △사외적 적절성 제고 △학문의 국제화 추구 등을 꼽고 있다. 94년부터 98년까지 5년에 걸쳐 단

계적 목표가 각각 제시돼 있다. <각년도별 주요 목표는 아래 표 참조>  
이와 관련해 본 실천안은 지난 93년 2학기 초에 나온 예정이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1년후에 작성이 완료됐다. 기획조정처의 한 관계자는 "각 행정부서별 발전의 취향이 행정적으로 늦어졌고, 그 이후에는 학국측 전문위원의 심의가 늦어졌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측은 "대학당국의 황산 이진계획의 일환이다"라며 심의과정중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문회측 심의위원이 교내에 아직까지 심의위원이 내규 등 심의·의결·권한 등 불확정한 규정에서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회계제 마련 등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 실천안과 관련해 많은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학부>

## <학생증명서>

주: 년도별 학생증명서 목표(정원기준): 대학원(6개) 매년 80명

| 구분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비고          |
|--------|-------|-------|-------|-------|-------|-------|-------------|
| 학부(서울) | 6,920 | 6,920 | 6,920 | 6,920 | 6,920 | 6,920 | 서울캠퍼스 동결    |
| 대학원    | 1,960 | 2,059 | 2,139 | 2,219 | 2,299 | 2,379 | 매년 80명 증가목표 |
| 계      | 8,880 | 8,979 | 9,059 | 9,139 | 9,219 | 9,29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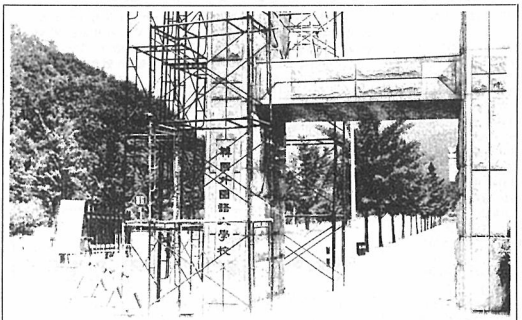
주: 학년별 학생증명서 목표(정원기준): 매년 80명

| 구분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비고                        |
|--------|-------|-------|-------|-------|-------|-------|---------------------------|
| 학부(서울) | 6,200 | 6,410 | 6,640 | 6,950 | 7,280 | 7,600 | · 1996년 서울캠퍼스 학생수보다 상회하게됨 |

## <학생증명서>에 따른 교수증명서 계획

| 구분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비고 |
|------|---------|---------|---------|---------|---------|---------|----|
| 교원수  | 439/330 | 439/340 | 449/357 | 455/376 | 474/406 | 492/418 | 계  |
| 정원대비 | 75%     | 77%     | 80%     | 83%     | 86%     | 85%     |    |
| 학부기준 | 1:40    | 1:39    | 1:38    | 1:37    | 1:35    | 1:35    |    |

단, 년도별 학생증명서 계획에 미달할 경우에는 93학년도 기준 교원 정원 매년 2% 포인트씩 증원



## 보수공사 안하는 건물 없을까?

외대발전 5개년 실천계획안(실천안)이 대학당국측 시안으로 첫 선을 보였다. △학문의 정통적 탐구 △정보와 지식의 능동적 창출 △국제적 개방성의 추구 라는 2년내외 외대 교육의 이념 하에서 외대발전의 중점 목표로 △교육의 질적 우수성과 학수성 확보 △사외적 적절성 제고 △학문의 국제화 추구 등을 꼽고 있다. 94년부터 98년까지 5년에 걸쳐 단

<사진부>

<용인캠퍼스 년도별 증감증원 계획>

| 구분     | 제1                                  | 제2                                       | 제3                                 | 제4                                 | 제5                                 | 제6                                 | 비고                          |
|--------|-------------------------------------|------------------------------------------|------------------------------------|------------------------------------|------------------------------------|------------------------------------|-----------------------------|
| 인원     | 94                                  | 95                                       | 96                                 | 97                                 | 98                                 | 99                                 |                             |
| 이공계열   | 전과공학과<br>신소재공학과<br>신소재공학과<br>신소재공학과 | 3기학과 중점 및<br>정보통신공학과<br>신소재공학과<br>신소재공학과 | 3기학과<br>신소재공학과<br>신소재공학과<br>신소재공학과 | 3기학과<br>신소재공학과<br>신소재공학과<br>신소재공학과 | 3기학과<br>신소재공학과<br>신소재공학과<br>신소재공학과 | 3기학과<br>신소재공학과<br>신소재공학과<br>신소재공학과 | 40명<br>10명<br>80명<br>증가증원요청 |
| 이·문·예  | 이·문·예                               | 이·문·예                                    | 이·문·예                              | 이·문·예                              | 이·문·예                              | 이·문·예                              | 증가증원요청                      |
| 생활체육대학 | 생활체육대학                              | 생활체육대학                                   | 생활체육대학                             | 생활체육대학                             | 생활체육대학                             | 생활체육대학                             | 증가증원요청                      |

## 서울 서거, 분반제도 철폐 활동 수업선택권 없는 것이 원인

수강신청기간을 맞아 분반제도가 있는 인원이 많은 과의 경우 이 제도를 없애기 위한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캠퍼스 서거아카데미는 수강신청 마감인 지난 3일(금)까지 수강신청서를 학과장실에 제출하지 않고 과방의 집행부들에게 내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분반제도의 단점으로 △반이 나뉘어져 있어 자신이 듣고 싶은 교수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점 △수업시간을 조절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한편 영어과는 분반제도가 현재 없는 상태이다.

## 교협, 임금 인상을 8%에 합의 단기복지사안 일부 해결

대학당국은 교수회의와의 합의에서 최소기본급 인상률 8%에 합의하고 이번 학년도를 지난 3일(금) 교수들에게 지급했다. 교협은 최소 기본급 인상률을 올해 11.0%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 서울 총학·후생과, 식사 무료배식 식대인상 저지투쟁 정리 의미

서울캠퍼스 총학생회·후생과는 지난 3일(금) 2차원본에 한해 학교식당에서 학생들에게 식사를 무료 배식했다. 이는 식대인상저지투쟁이 전개되었던 서울캠퍼스 학내문제에 지난 대동계 기간동안 대학당국과의 합의로 일단락됨에 따라 정리하는 의미에서 식사를 무료 배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오준호(정·행 4) 군은 "이번에 식사 무료 배식은 후생의 투쟁을 일차적으로 정리하고 식대가 앞으로 더욱 세게 벌어지는 의미"라며 "올해로 3주년을 맞는 6·3 정권사국부 총리서단 합의시위투쟁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 후생과 점검

## 운영의 합리화 위해 경영방법의 혁신 필요



식당문제는 후생과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서울캠퍼스 학원지구와사업의 현안으로 떠올랐던 '식당문제'가 인상을 부담하기 위한 5여인의 복지기금 조성에 학생회와 대학당국 양측이 서로 합의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이와 관련해 학생들 사이에선 식당을 비롯한 학내 후생복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부서의 후생복지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93년도 자료에 의하면 식당 복지에 약 4백만원 정도가 기록된다. 그러나 식당지구위원(식지위)의 조사결과 육류의 경우 현 시장가격보다 kg당 1천원 이상 비싸게 구입한 점이 밝혀졌다. 이에 식지위에서는 이 사실을 지적하고 후생과에

그러나 이 수익금이 매년 그 액 수대로 학내 복지에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임대수익금이 매점의 적자를 메꾸는 데 쓰여지기 때문이다. 한편 용인캠퍼스 대학생합동총회(대합총) 93년도 결산서를 보면 대합총에서 운영하는 매점에서의 수익액은 약 2천만원 정도다. 학생수가 훨씬 적은 용인캠퍼스도 짧은 매점에서도 적자가 나지 않는데 서울캠퍼스 매점까지 적자가 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구내식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작년의 경우 서점 수익금은 한달에 약 4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대학의 한 서점 전담경영인은 "외대 정도면 인원수나 규모로 볼 때 매년 최소한 2천만원 정도의 수익은 무난하다"라고 주장했다. 후생과가 운영하는 학내 매점이나 서점 등이 비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수준으로 운영되는 것은 본래 학내 후생복지 향상에 열의가 부족한 지 의문이다. 대합총의 복리향상과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선 외부인사 임대 등 경영방법의 혁신이 시급하다. <대학부>

## 용인, 당국에 2차례 질의서 보내 합의서에 대한 구체적 실천사항

대학당국과 구두합의로 학원지구와사업에 일단락됐음은 용인캠퍼스 총학생회가 합의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법과 단기적인 교육환경 개선내용을 담긴 질의서를 2차례에 걸쳐 발송했다. 그러나 5월 30일까지 명시된 1차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아직 학생회측으로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24일 부총장실로 발송된 1차 질의서는 11개요구안에 대한 구두합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신경정신과 관련인사들은 대학당국의 공식적인 임직자로서는 아니므로 임직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월 30일까지 명시된 1차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아직 학생회측으로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월 30일까지 명시된 1차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아직 학생회측으로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복지개선 요구사항 중 △교수직수준 현재 중학생 1년에 한하여 등록금 1년분 전액 지급 △교수 해의 단기인수를 현재 연 10명에서 11명으로 수에서 확대 △복지교수의 퇴직금에서 학교부담금의 공제방식 개선 △교수연구비 증액 등이 결정됐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몇가지 지 사항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대학당국과 학생회측이 논의가 되고 있으나 대부분 합의 사항으로 대학당국의 공식적인 임직자로서는 아니므로 임직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복지개선 요구사항 중 △교수직수준 현재 중학생 1년에 한하여 등록금 1년분 전액 지급 △교수 해의 단기인수를 현재 연 10명에서 11명으로 수에서 확대 △복지교수의 퇴직금에서 학교부담금의 공제방식 개선 △교수연구비 증액 등이 결정됐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몇가지 지 사항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대학당국과 학생회측이 논의가 되고 있으나 대부분 합의 사항으로 대학당국의 공식적인 임직자로서는 아니므로 임직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복지개선 요구사항 중 △교수직수준 현재 중학생 1년에 한하여 등록금 1년분 전액 지급 △교수 해의 단기인수를 현재 연 10명에서 11명으로 수에서 확대 △복지교수의 퇴직금에서 학교부담금의 공제방식 개선 △교수연구비 증액 등이 결정됐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몇가지 지 사항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대학당국과 학생회측이 논의가 되고 있으나 대부분 합의 사항으로 대학당국의 공식적인 임직자로서는 아니므로 임직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복지개선 요구사항 중 △교수직수준 현재 중학생 1년에 한하여 등록금 1년분 전액 지급 △교수 해의 단기인수를 현재 연 10명에서 11명으로 수에서 확대 △복지교수의 퇴직금에서 학교부담금의 공제방식 개선 △교수연구비 증액 등이 결정됐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몇가지 지 사항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대학당국과 학생회측이 논의가 되고 있으나 대부분 합의 사항으로 대학당국의 공식적인 임직자로서는 아니므로 임직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복지개선 요구사항 중 △교수직수준 현재 중학생 1년에 한하여 등록금 1년분 전액 지급 △교수 해의 단기인수를 현재 연 10명에서 11명으로 수에서 확대 △복지교수의 퇴직금에서 학교부담금의 공제방식 개선 △교수연구비 증액 등이 결정됐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몇가지 지 사항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대학당국과 학생회측이 논의가 되고 있으나 대부분 합의 사항으로 대학당국의 공식적인 임직자로서는 아니므로 임직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복지개선 요구사항 중 △교수직수준 현재 중학생 1년에 한하여 등록금 1년분 전액 지급 △교수 해의 단기인수를 현재 연 10명에서 11명으로 수에서 확대 △복지교수의 퇴직금에서 학교부담금의 공제방식 개선 △교수연구비 증액 등이 결정됐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몇가지 지 사항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대학당국과 학생회측이 논의가 되고 있으나 대부분 합의 사항으로 대학당국의 공식적인 임직자로서는 아니므로 임직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복지개선 요구사항 중 △교수직수준 현재 중학생 1년에 한하여 등록금 1년분 전액 지급 △교수 해의 단기인수를 현재 연 10명에서 11명으로 수에서 확대 △복지교수의 퇴직금에서 학교부담금의 공제방식 개선 △교수연구비 증액 등이 결정됐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몇가지 지 사항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대학당국과 학생회측이 논의가 되고 있으나 대부분 합의 사항으로 대학당국의 공식적인 임직자로서는 아니므로 임직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복지개선 요구사항 중 △교수직수준 현재 중학생 1년에 한하여 등록금 1년분 전액 지급 △교수 해의 단기인수를 현재 연 10명에서 11명으로 수에서 확대 △복지교수의 퇴직금에서 학교부담금의 공제방식 개선 △교수연구비 증액 등이 결정됐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몇가지 지 사항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대학당국과 학생회측이 논의가 되고 있으나 대부분 합의 사항으로 대학당국의 공식적인 임직자로서는 아니므로 임직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복지개선 요구사항 중 △교수직수준 현재 중학생 1년에 한하여 등록금 1년분 전액 지급 △교수 해의 단기인수를 현재 연 10명에서 11명으로 수에서 확대 △복지교수의 퇴직금에서 학교부담금의 공제방식 개선 △교수연구비 증액 등이 결정됐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몇가지 지 사항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대학당국과 학생회측이 논의가 되고 있으나 대부분 합의 사항으로 대학당국의 공식적인 임직자로서는 아니므로 임직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복지개선 요구사항 중 △교수직수준 현재 중학생 1년에 한하여 등록금 1년분 전액 지급 △교수 해의 단기인수를 현재 연 10명에서 11명으로 수에서 확대 △복지교수의 퇴직금에서 학교부담금의 공제방식 개선 △교수연구비 증액 등이 결정됐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몇가지 지 사항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대학당국과 학생회측이 논의가 되고 있으나 대부분 합의 사항으로 대학당국의 공식적인 임직자로서는 아니므로 임직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복지개선 요구사항 중 △교수직수준 현재 중학생 1년에 한하여 등록금 1년분 전액 지급 △교수 해의 단기인수를 현재 연 10명에서 11명으로 수에서 확대 △복지교수의 퇴직금에서 학교부담금의 공제방식 개선 △교수연구비 증액 등이 결정됐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몇가지 지 사항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대학당국과 학생회측이 논의가 되고 있으나 대부분 합의 사항으로 대학당국의 공식적인 임직자로서는 아니므로 임직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복지개선 요구사항 중 △교수직수준 현재 중학생 1년에 한하여 등록금 1년분 전액 지급 △교수 해의 단기인수를 현재 연 10명에서 11명으로 수에서 확대 △복지교수의 퇴직금에서 학교부담금의 공제방식 개선 △교수연구비 증액 등이 결정됐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몇가지 지 사항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대학당국과 학생회측이 논의가 되고 있으나 대부분 합의 사항으로 대학당국의 공식적인 임직자로서는 아니므로 임직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복지개선 요구사항 중 △교수직수준 현재 중학생 1년에 한하여 등록금 1년분 전액 지급 △교수 해의 단기인수를 현재 연 10명에서 11명으로 수에서 확대 △복지교수의 퇴직금에서 학교부담금의 공제방식 개선 △교수연구비 증액 등이 결정됐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몇가지 지 사항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대학당국과 학생회측이 논의가 되고 있으나 대부분 합의 사항으로 대학당국의 공식적인 임직자로서는 아니므로 임직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복지개선 요구사항 중 △교수직수준 현재 중학생 1년에 한하여 등록금 1년분 전액 지급 △교수 해의 단기인수를 현재 연 10명에서 11명으로 수에서 확대 △복지교수의 퇴직금에서 학교부담금의 공제방식 개선 △교수연구비 증액 등이 결정됐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몇가지 지 사항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대학당국과 학생회측이 논의가 되고 있으나 대부분 합의 사항으로 대학당국의 공식적인 임직자로서는 아니므로 임직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복지개선 요구사항 중 △교수직수준 현재 중학생 1년에 한하여 등록금 1년분 전액 지급 △교수 해의 단기인수를 현재 연 10명에서 11명으로 수에서 확대 △복지교수의 퇴직금에서 학교부담금의 공제방식 개선 △교수연구비 증액 등이 결정됐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몇가지 지 사항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대학당국과 학생회측이 논의가 되고 있으나 대부분 합의 사항으로 대학당국의 공식적인 임직자로서는 아니므로 임직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복지개선 요구사항 중 △교수직수준 현재 중학생 1년에 한하여 등록금 1년분 전액 지급 △교수 해의 단기인수를 현재 연 10명에서 11명으로 수에서 확대 △복지교수의 퇴직금에서 학교부담금의 공제방식 개선 △교수연구비 증액 등이 결정됐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몇가지 지 사항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대학당국과 학생회측이 논의가 되고 있으나 대부분 합의 사항으로 대학당국의 공식적인 임직자로서는 아니므로 임직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복지개선 요구사항 중 △교수직수준 현재 중학생 1년에 한하여 등록금 1년분 전액 지급 △교수 해의 단기인수를 현재 연 10명에서 11명으로 수에서 확대 △복지교수의 퇴직금에서 학교부담금의 공제방식 개선 △교수연구비 증액 등이 결정됐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몇가지 지 사항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대학당국과 학생회측이 논의가 되고 있으나 대부분 합의 사항으로 대학당국의 공식적인 임직자로서는 아니므로 임직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복지개선 요구사항 중 △교수직수준 현재 중학생 1년에 한하여 등록금 1년분 전액 지급 △교수 해의 단기인수를 현재 연 10명에서 11명으로 수에서 확대 △복지교수의 퇴직금에서 학교부담금의 공제방식 개선 △교수연구비 증액 등이 결정됐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몇가지 지 사항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대학당국과 학생회측이 논의가 되고 있으나 대부분 합의 사항으로 대학당국의 공식적인 임직자로서는 아니므로 임직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복지개선 요구사항 중 △교수직수준 현재 중학생 1년에 한하여 등록금 1년분 전액 지급 △교수 해의 단기인수를 현재 연 10명에서 11명으로 수에서 확대 △복지교수의 퇴직금에서 학교부담금의 공제방식 개선 △교수연구비 증액 등이 결정됐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몇가지 지 사항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대학당국과 학생회측이 논의가 되고 있으나 대부분 합의 사항으로 대학당국의 공식적인 임직자로서는 아니므로 임직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복지개선 요구사항 중 △교수직수준 현재 중학생 1년에 한하여 등록금 1년분 전액 지급 △교수 해의 단기인수를 현재 연 10명에서 11명으로 수에서 확대 △복지교수의 퇴직금에서 학교부담금의 공제방식 개선 △교수연구비 증액 등이 결정됐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몇가지 지 사항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대학당국과 학생회측이 논의가 되고 있으나 대부분 합의 사항으로 대학당국의 공식적인 임직자로서는 아니므로 임직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복지개선 요구사항 중 △교수직수준 현재 중학생 1년에 한하여 등록금 1년분 전액 지급 △교수 해의 단기인수를 현재 연 10명에서 11명으로 수에서 확대 △복지교수의 퇴직금에서 학교부담금의 공제방식 개선 △교수연구비 증액 등이 결정됐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몇가지 지 사항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대학당국과 학생회측이 논의가 되고 있으나 대부분 합의 사항으로 대학당국의 공식적인 임직자로서는 아니므로 임직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복지개선 요구사항 중 △교수직수준 현재 중학생 1년에 한하여 등록금 1년분 전액 지급 △교수 해의 단기인수를 현재 연 10명에서 11명으로 수에서 확대 △복지교수의 퇴직금에서 학교부담금의 공제방식 개선 △교수연구비 증액 등이 결정됐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몇가지 지 사항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대학당국과 학생회측이 논의가 되고 있으나 대부분 합의 사항으로 대학당국의 공식적인 임직자로서는 아니므로 임직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복지개선 요구사항 중 △교수직수준 현재 중학생 1년에 한하여 등록금 1년분 전액 지급 △교수 해의 단기인수를 현재 연 10명에서 11명으로 수에서 확대 △복지교수의 퇴직금에서 학교부담금의 공제방식 개선 △교수연구비 증액 등이 결정됐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몇가지 지 사항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대학당국과 학생회측이 논의가 되고 있으나 대부분 합의 사항으로 대학당국의 공식적인 임직자로서는 아니므로 임직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복지개선 요구사항 중 △교수직수준 현재 중학생 1년에 한하여 등록금 1년분 전액 지급 △교수 해의 단기인수를 현재 연 10명에서 11명으로 수에서 확대 △복지교수의 퇴직금에서 학교부담금의 공제방식 개선 △교수연구비 증액 등이 결정됐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몇가지 지 사항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대학당국과 학생회측이 논의가 되고 있으나 대부분 합의 사항으로 대학당국의 공식적인 임직자로서는 아니므로 임직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복지개선 요구사항 중 △교수직수준 현재 중학생 1년에 한하여 등록금 1년분 전액 지급 △교수 해의 단기인수를 현재 연 10명에서 11명으로 수에서 확대 △복지교수의 퇴직금에서 학교부담금의 공제방식 개선 △교수연구비 증액 등이 결정됐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몇가지 지 사항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대학당국과 학생회측이 논의가 되고 있으나 대부분 합의 사항으로 대학당국의 공식적인 임직자로서는 아니므로 임직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복지개선 요구사항 중 △교수직수준 현재 중학생 1년에 한하여 등록금 1년분 전액 지급 △교수 해의 단기인수를 현재 연 10명에서 11명으로 수에서 확대 △복지교수의 퇴직금에서 학교부담금의 공제방식 개선 △교수연구비 증액 등이 결정됐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몇가지 지 사항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대학당국과 학생회측이 논의가 되고 있으나 대부분 합의 사항으로 대학당국의 공식적인 임직자로서는 아니므로 임직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복지개선 요구사항 중 △교수직수준 현재 중학생 1년에 한하여 등록금 1년분 전액 지급 △교수 해의 단기인수를 현재 연 10명에서 11명으로 수에서 확대 △복지교수의 퇴직금에서 학교부담금의 공제방식 개선 △교수연구비 증액 등이 결정됐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몇가지 지 사항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대학당국과 학생회측이 논의가 되고 있으나 대부분

# 동북아 안정의 최대 걸림돌, 북·미간 '핵' 공방

## 5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의 장래

양 감 용

<본고 대학원  
외대학술연구회 회원>

### 동북아 갈등요인의 해소와 북핵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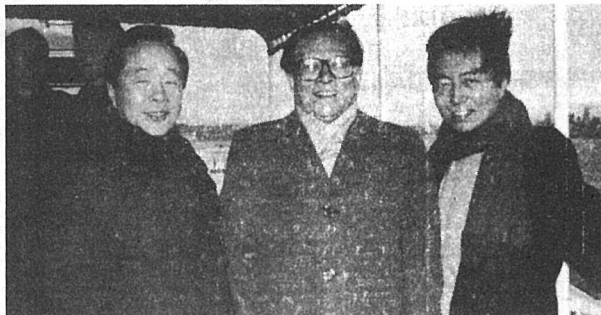
지난 40여년 세계질서의 양극인 소련과 미국의 대립구도가 소련의 몰락으로 사실상 소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판국에서도 동북아에서 불안요인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의혹에 대하여 군사정권, 경제체제 혼란으로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북핵문제에 대한 한반도의 해결책은 한반도 정세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동북아지역은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립과 아울러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하게 남아 있고 지정학적 면에서 동북아지역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전진적 불균형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갈등요인들이 점차로 해소되는 추세에 있다. 먼저, 미국과 러시아 간의 대립이 현실적 안보로 사라졌다. 중국과 미국의 긴장관계 또한 인권문제, 무역차관, 무기수출 등 표면적인 갈등관계는 서로의 정치·경제적 필요에 의해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바뀌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 따라 국경문제와 해안, 섬진지인 중국해안, 군사교섭의 확대 등 여러면에서 우호관계가 증진되고 있다.

이러한 전방적인 정세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에서 가장 뚜렷한 갈등요인으로 대두되는 것은 북한 핵무기개발 의혹으로 파생된 일련의 갈등과 대립이다. 이는 이미 남북관계에 뛰어넘어 북한과 국제사회의 갈등으로 증폭되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를 둘러싼 경쟁설, 경제제재 문제와 동북아의 안정을 더욱 위협하는 것으로 안보환경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1년 말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술핵무기를 철수한 후 북한은 핵과 미·비핵화중립선에 서명하였다.



핵문제를 완화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공조하라는 미명하에 강대국들에 얽매는 모습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을 대외적으로 방어하는 데 주저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1992년 1월에는 IAEA의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는 등 핵사찰에 대하여 성의있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IAEA가 임시사찰이 아닌 정기사찰을 요구했고 북한은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사찰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IAEA가 안보리회의에 의한 대북제재를 위협하고, 93년 초 미국은 팀스카이트리온(미국인들은 이것을 전쟁연습(war games)이라 한다)을 진행했다. 이에 북한

은 핵의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인연이 깊기 때문에 핵무기개발 의혹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개발과 IAEA간의 시료제출에 관련된 기술적·법률적 논쟁이 아닌 북한과 미국이 직접 해결해야 할 정치적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IAEA가 상정해 놓은 사찰을 상정하지 못하는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관되게 북한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북한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공조하라는 미명하에 강대국들에 얽매는 모습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을 대외적으로 방어하는 데 주저하게 할 수도 있다.

전국, 북한 핵무기개발 의혹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고 미국과 IAEA가 계속해서 사찰에 관련된 여러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북핵을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와 해결방안

북한과 미국의 팽팽한 줄다리기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한반도의 긴장과

###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점차로 해소돼 가는

경향에도 북핵 문제로 갈등과 대립이 형성됐다.

현재의 동북아 정세는 미국의 '북한 길들이기'가

파행적으로 전개되면서 긴장이 상존하는게 사실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한과 미국이 북한에 위협적인

모든 행위를 중지하고 남북이 주체적으로 문제 해결의 책임을 져야한다.

이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NPT탈퇴선언 후 북한 핵무기개발 의혹이 가장 심각해져 급명백 핵 무기를 1~2개 정도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추정설보다가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핵무기'를 제조에 필요한 핵무기개발 의혹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거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무기개발 의혹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거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무기개발 의혹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북핵은 냉전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북아에서 기존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동시에 미국에 군사적 위협의 이익을 제공해 주고 있다. 북핵문제는 관련된 정부의 인위적 핵과 군사·경제제에 위협을 가할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의 정치적 계산

이들은 한자문기에는 미국과 북

유일한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이 북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직접협상에 접근하는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유사사태를 핵문제와 유사하게 하고 있는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은 사실과 달리,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내세우는 다짐이든 수출에나 수입에나, 핵무기개발 해 결을 위한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데에 있다. 북한이 핵무기개발 해 결을 위한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데에 있다. 북한이 핵무기개발 해 결을 위한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데에 있다.

북핵은 냉전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북아에서 기존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동시에 미국에 군사적 위협의 이익을 제공해 주고 있다. 북핵문제는 관련된 정부의 인위적 핵과 군사·경제제에 위협을 가할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북핵의 안보위협에 대하여 동북아 각국은 서로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고 경제·군사제재를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북핵문제가 대외로 나아가는 손잡이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남·북과 국제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북핵문제를 한국에 대항해결된 것이라며, 남·북과 국제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북핵문제를 한국에 대항해결된 것이라며, 남·북과 국제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동북아 정세는 미국의 '북한 길들이기'가 파행적으로 전개되면서 긴장이 상존하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극단적인 문제해결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북한을 자주 독립시키고 자국적 이익을 지키는 데에 당사자들의 현실적 조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북한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남북이 주체적으로 사태해 결의 책임을 지는 자세가 요구된다.

### 한미간 체결한 조약·협정

#### ⑤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미국은 한국경제를 보다 철저히 틀어쥐기 위해서 전후에 새로운 경제원조정책을 들고 나왔는데, 이것이 이른바 우상 경제원조였다.

우상 경제원조는 한국에 점차 차관과 직접투자, 대한 미국 자본금 투입의 지원을 담기 위해서 1954년 정월부터 실시된다. 전후 한국의 형편은 정치정세와 불안정하고 경제위기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미국 자본금이 발을 붙일 형편이 못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국가자본에 의한 이른바 경제원조를 통해서 정치·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하고 자본금이 대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 바로 우상 경제원조였던 것이다.

자본금의 투입 뿐 아니라 한국을 미국의 군사 침략지대로 만들기 위해서도 이 정책은 필요한 것이었다. 미국이 한국을 군사기지화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경제를 군사적 부속물로 전락시켜서 막대

### ‘되로 주고 말로 받기’ 조약



한 군사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했다. 미국은 이른바 원조를 통해서 파괴된 경제를 재건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수습·정비하고 한국 경제를 미국의 군사적 부속물로 철저하게 전락시키는 방법에서 재빨리 것을 계획했던 것이다.

미국 자본금 투입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한 목적으로 1957년 11월 7일에 체결된 협정이 바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이다.

이 조약은 미국 독점자본가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다다리고 거주하며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조약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개인이나 회사, 법인을 미국과 미 자본가들이 통상 및 투자를 위해 자유로이 입국·여행 또는 거주할 수 있으며 '어떠한 종류의 배제도 받지 않고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국외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보호와 보상보다도 적지 않은 보호와 보상을 받는다'고 미국측대우를 규정했다.

그리고 제3조 제3항에는 미 독점자본이 '모든 종류의 상업·공업·금융업 및 기타 권리행사에 종사'하며 제7조 '모든 종류의 유채, 부채의 통상을 규정, 입차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소유·점유' 제9조와 제10조는 권리를 부여했다.

제3조와 제3항에는 당국이 미 투자자들의 특권과 재산과 모든 기관을 철저히 보호할 의무를 지며 모든 미국민들과 그 기관들에 대해 치외법권적 특권을 부여했다. 즉 그들들의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외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정부가 마음대로 세금과 관세를 부여할 수 없으며 그들에게 투자의 자본과 기타에서 생긴 이윤은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같은 '되로 주고 말로 받기' 조약은 미국의 독점자본이 한국 땅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자본을 투자하여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약이다. 이것은 곧 경제침략이라는 부분까지도 관철 없이 체결하고 취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준 침략조약이 연속적인 대북조약이다.

<사회부>

### 글·심·는·순·서

####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1. 일본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2. 일본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3. 중국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
4. 현시기 북한사회주의 노선과 남북통일
5. 총괄: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의 장래

### 마음의 양식은

#### 구내서점

구내서점에서는 교재를 제외한 소설류, 에세이, 사회과학, 시집, 사전류의 서적을 10%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 육체의 양식은

#### 구내식당

구내식당에서는 영양상의 엄격한 식품관리와 맛을 고려한 양질의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후생과 종사원은 봉사

와 친절과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겠습니다.

### 후 생 과

### 연수원 재학생과정 모집요강

1. 모집학과: 인문 및 시간
2. 교육기간: 제19기: 1994. 8. 1(월)~10. 7(금) (10주)  
제20기: 1994. 10. 10(월)~12. 16(금) (10주)
3. 지원자격: 학부 재학생 및 대학원생
4. 선발방법: 등록금 마감
5. 반원생: 영어, 일어과정은 '94. 7. 23(토) 15: 00 외국어연수원에서 분반시험을 실시하며 분반시험 결과는 7. 26(화) 연수원 게시판에 공고하며 전학문의 가능함
6. 제19기 등록금 및 접수처: 1994. 6. 7(월) 6. 24(금), 본 외국어연수원 교학과
7. 제출서류: 등록원서(본 연수원 교학과 비치), 증명사진 1매(수집증 발급용)
8. 수강료: 200, 000원 일시납(교과대 본인부담)
9. 기타: 가. 수강연기신청 동복로 불가빌딩 2층으로 인하여 수강이 어려운 분은 개강일전에 교학과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협의하면 한 학기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함. 나. 수강료(원생) 발급 등록금 증명원서(2×3cm) 1매를 수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개강일에 발급함. 다. 교육기간이 같은 일반인과정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노어, 베트남어, 사반어, 불어, 인도네시아어 강좌도 개설됩니다. (수강료 ₩300, 000)

\*문의전화: 외국어연수원 교학과, 961-4174/5, 962-7119

1994. 6.

외 국 어 연 수 원

### 공 고

#### 제 목: 3차 간담 및 유형성 출혈열 예방접종 실시

보건의료에서는 재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3차 간담 및 유형성 출혈열 예방접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다 음 —

1. 예방접종 실시일: '94년 6월 8일(수) 10: 00~16: 00
2. 대 상: '94. 5. 10. 2차 예방접종자 및 기본접종 후 4년이 경과한 자
3. 예 방 접 종 료: 1) 간 담: 6, 200원  
2) 유형성 출혈열: 7, 700원
4. 실 시 장 소: 서울 및 용인캠퍼스 보건실

보 건 실

### 제 14 회 전국대학교 외국어 학력경시대회

1. 경시과목: 영어, 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태)
2. 경시대응: 수필·장르별, 표현력의 측정평가, 번역·외국어의 국문번역, 국문외국어 번역능력 측정평가, 회화·외국어 청취력, 구사력의 측정평가
3. 배정비율: 수필-30%, 번역-30%, 회화-40%(청취력-20%, 구사력-20%)
2. 참가자격: 1) 전국 4년제 대학(교)의 재학생으로 소속대학(교)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본 경시대회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응시자는 과거의 동일한 상 또는 하위급의 수상 대상에서 제외함.  
3) 경시대과목과 상응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1년이상 체재하고 귀국한 학생은 참가불가
3. 대외연락처: 1994. 6. 22(수) 09: 00~17: 00
4. 대외연락처: 한국외국어대학교
5. 시상 및 발표: 1) 심사발표: ○일시: 1994. 7. 1(금) 12: 00,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경문 개시실, ○각 대학(교)으로 개별통지  
2) 시상내용: 최우수상 1명(각 과목별): 교 육 부 장관상-상장 및 부상 1,000, 000원  
우수상 2명(각 과목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상-상장 및 부상 500, 000원  
장려상 3명(각 과목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상-상장 및 부상 200, 000원  
3) 시상일시: 1994. 7. 8(금) 오전 11: 00시  
4) 시상장소: 한국 외국어 대학교
6. 참가신청 접수: 1) 구비서류: 참가신청서 및 총(학)장 추천서 1통(소장장) 사진 2매(반명함판)  
2) 접수기간: 1994. 6. 1(수)~6. 15(수)  
3) 접수처: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교학과  
주 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락동 270, 전화: (02)965-7047, 961-4033, FAX: (02)960-7888  
4) 접수방법: ○서울: 경시대지역을 기점으로 직접 접수하기 바람. 학교별 단위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우편접수: 6. 15(수)까지 도착분에 한함.  
5) 기타 문의사항은 소속대학(교) 학생처(과), 해당 학과장 또는 본대학교 사범대학 교과과로 문의하기 바람.

한국외국어대학교



## ‘범청학련 총회’로 대중화 실현



법정학련 단총련부는 8월15일 판문점에서 총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총회에서는 연방제 확정, 강령과 규약 개정, 시언저만 등을 주요의제로 할 예정이다.

시민 '물가안정'·학생 'UR대책' 제1실책으로  
 현저권 반대 대세... '퇴직'에 거부감

[illegible]

94년 기조, 반미반전·연방제·민족대단결  
천 총회 개최로 조직체계 완성·탄압 극복

사무극장으로 구성'을 두고 있으며  
조는 조의 운영은 청 건이 3지함의  
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요. 그러기에  
명칭하루이 북의 조정을 받는다느  
니 하는 것은 어불성현일 것이다.  
지금같이 정권의 비위으로 명칭하  
루은 한변의 공동의정단회의와 2차  
래의 실행위원회를 기치를 쏜다.  
(지이하루에서는 몇 차례의 의정단  
회의, 중앙위원회(가있다) 공동  
사무극장으로 박정희(가있다) 88)  
성용술(건국대 88), 최정환(서울대  
대 88), 최정환(북쪽 가전대)이  
라고 하고 공동의정단은 남측의 김현  
준(하루원 의장), 북측의 허정숙,  
래의 박규호·김정숙 등이 맡고 있

다. 또 리 지역에 있는 사무국장이 있는 데 내측은 양동호 관원님 조동호 위원장이 맡고 있다.

이렇게 건축한 양동호는 자신 의 사치로 크게 자취를 끼치고 있다. 첫째, 범죄현황이 이 민족 에 있어 유일한 현실이라는 '열반 계방식의 후원'을 찬양하고 이 의 신념을 외쳐 싸워 나간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 시로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해 가지고 있는 것은 정제로

북측의 리지, 범죄현황의 운남, 남 북의 범죄현황이 공동범죄와 자국수괴를 중 제반사실을 논조 하고 고집하는 일이다. 국경남단 이 50%에 이르는 군중 깃발을 붙이고 자국수괴를 논조하고 있다. 이 들 우리 남, 북, 해외의 범죄현 황의 '동일'을 만연히 외친 것들을 충화하고 주지하는 것이 바로 범 정현황을 단정하고 남, 북, 해 외의 민족단간의 친연이 범정현

한 예가 미국의 봉제공장이 된다

어느 날 갑자기 같은 유흥업자를 불러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한밤중에 방  
에서 일어나고 우리는 직접정부를  
관하에 대한 본래는 그러나 조장이  
가운데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같은 한밤중에는 한 열매처럼 가늠  
할 것이다.

어느 한밤중에 우리 한밤중을 본  
인도. 그러나 한밤중은, 한밤중. 본  
에는 한밤중에 본래 우리 한밤중 집  
게 진의를 위해 주고 있으며 민족  
의 생명을 위해 주고 있으며. 사상과  
제도의 차이 때문에 서양인의 태  
과 민족을 개척하고. 군사주의 완  
배. 서양문화 등으로 돈을 벌려는 미국의  
정착에 돌아서는 안된다 것이다.

총회 기록

월요일도. 발명위원회는 93년에 500  
여명에 가까운 화물들을 한밤중에  
오전에 오르면 공공기관 회의로  
가게 되었다. 이러한 태도에 기초하여  
어느 한밤중에는 한밤중에 한밤  
게 되었다. 그러나 한밤중에는 한밤  
대중들을 한밤중하기 위해서는 한  
인도의 조지에게도 한밤중에 한밤  
발명위원회: 최고 의사진정기  
발명위원회 총회 한밤중 개최되지  
않아 이 기록은 충분히 발명되지  
않다. 이러한이 총회는 발명위원  
을 한밤중에 한밤중에 한밤중  
방으로 보내고 있었으며 남: 육  
년하위회의 단정실, 공동행동  
적 한밤중회의로 된 것이다.

민중운동의 새 미래에 대한 진전적 인식, 비민주적의 남포자 또한 비정당적인

셋째, 통일 1세대로서 통일은 준비 기간에 대한 남북한의 정전비판은 각각의 의회의 현실사실을 말한다.

각종 정치구현의 실현, 예술, 문, 화, 체육과도 및 민족 문화와 사업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와 반대로 사적인 의회에서 제기한 것보다 커다란 사건의 물 속에서, 반비판적, 양면적, 비민주적이다.

정혜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조국통일위원회〉

[illegible][illegible]

의개만평



# 이제 TOEFL은 시사영어사입니다

시사영어사는 ETS 공개 TOEFL<sup>®</sup>  
실제문제의 한국내 독점 출판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어시험은 시사영어사 TOEFL로 통합니다**

TOEFL로 고시, 취직, 대학원, 유학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60, 70년대 구식 모의 TOEFL문제로 공부하는 학습자들에 비해  
최근 1993, 92, 91, 90, 89년에 ETS가 공개한 실제 TOEFL문제로  
공부하는것이 짧은 시간에 높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며  
어떤 시험이든 고득점이 보장될 것입니다.

이제 TOEFL은 시사영어사입니다.

**ETS TOEFL®**  
**종합 TOEFL TEST**

1980년부터 1993년까지 출제된  
**ETS 공개 TOEFL® 실제문제 독점수록!**  
사서영어사전에 ETS 공개 TOEFL 실제문제의  
한국어 독점 출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YBM)시시영어사

(1) The following question is  $\Sigma_1^1$  complete: is there a sequence  $\langle \mathcal{A}_i \mid i \in \mathbb{N} \rangle$  of finite algebras such that  $\mathcal{A}_i \leq \mathcal{A}_{i+1}$  and  $\bigcup_{i \in \mathbb{N}} \mathcal{A}_i$  is a countable algebra that is not finitely generated?

YBM 영어교육 1번지  
시사영어사

\*전국서점에서 판매중!

문의전화 : (02) 275-5258  
(02) 274-0509

미국 ETS가 공개한 TOEFL® 실재문제를  
시사영어사에서만 발행하는 4가지 이유

- 1 TOEFL은 미국대학(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시험 작정 작품이다.
- 2 시사영어사는 1993년 10월 1일 지법판 청약을 거쳐 ETS와 저작권계약을 체결하여 1987년 10월 1일 이후에 ETS가 공개한 TOEFL 문제자료 복제 및 출판권을 부여받았습니다.
- 3 국내에서는 시사영어사만이 유일하게 ETS가 공개하는 TOEFL 실패문제집 직접 사용하여 TOEFL 교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 4 이책은 TOEFL 시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유일한 TOEFL 문제집입니다.

만들어지는 시사영어사의 특별한 TOEFL 교재로 국제인의  
내일에 당당히 참여 하십시오.



# 평화를 위한 세계문화의 몸짓 '94 세민전

세계각국의 평화로운 모습을 담은 주제영상으로 남북화해의 장을 마련한 세민전.

이 행사는 외대의 복싱을 살려 학문연구의 성과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행사로서 1971년 제1회 '세계민속예술제'를 시작으로 1981년까지 학년제로 7년 치러졌다. 그러나 해가 거듭되면서 학년제인 주제에 되는 행사 본래의 소박한 의미가 아닌 정치적인 부패로 군사독재 이래 경제와 문화를 온건하는 수단으로써 사치를 지나치게 화려하고 학생들에게는 먼 행사로 전락해 학생들이 자해적으로 폐기해 버렸다. 90년대에 들어 학생들의 관심이 학원기후와 등 학내 발전에 모아지면서 92년 용인캠퍼스 학생들 중심으로 외대의 상징이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외대만이 해낼 수 있는 종합예술 행사인 그 행사를 '세계민속예술제'라는 이름으로 부활시켰다.

두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세민전은 단지 공연뿐이었던 92년 행사를 살려, 각 과별로 세계 각국의 의상과 풍습, 사자, 공예품 등의 전시와 각종 음식을 조리하고 조리방법 및 유래를 함께 소개하여 세계 각국의 음식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각 나라의 모든 문화를 소개하는 종합적인 학술행사도 승화시켰다.

세계 민속공연, 전통춤, 음식전으로 나뉘어 치러진 세민전의 흥거를 맡았던 조원환(시하·체육·4) 등은 "세민전의 개최는 용인캠퍼스의 문화·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여 외부에 알렸다는 것 외에도 외대생들의 전공학문에 대한 관심과 학문연구의 계기를 마련하여 과학성취를 장려하고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있어 외대의 지위와 역할을 높였다"라며 대내외적인 의의를 밝힌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와 뒷전에는 준비가 석달전부터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의 재정문제, 중동문화와의 후원금, 장소마련 등의 여러 문제들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조원환군은 "학교측의 무책임한 행동등으로 무책임이었는데 무엇보다도 황산 7천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 학부도를 비롯한 모든 외대인들이 관여할 수 있는 장소 마련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말한다. 실제 재정과 장소문제는 행사가 치러지기 이전부터 학교측과 협상이 이뤄져 행사가 기쁘게 대로 무사히 진행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등으로 첫째날은 미숙한 점이 많이 드러났으나 둘째날의 공연에서 다듬어와 모두에게 호감을 건네주었다. 이렇듯인 하루는 친구들과 다들 눈을 부릅뜨고 함께 봤다는 이승희(시하·이화)는 "어제는 한 과가 차지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 반복되는 것도 많아 조금 지루한 면이 있었는데 오늘은 너무 알차고 정말 다 프로 같았다"라며 공연을 평가했다. 또 오지 못한 가족에게 자세하게 전해주기 위해 일일이 공연 내용을 그때그때의 느낌을 수첩에 기록하는 학부들도 있었다. 세민전 주최측의 평가를 앞두고 조원환 군은 "총합하고 공연후에 호감을 하며 세민전을 적극 후원한다고 했는데 올해처럼 막상 준비할 때는 발발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평가를 철저하게 하겠다"라며 96년도에는 올해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다는 결의를 낸다.

이렇듯 행사를 준비하고, 참가한 모든 외대인들의 발발이 엮여낸 결과는 결코 작지 않았다. 92년에 이어 용인캠퍼스의 전통적인 행사를 쇄신해 마련한 이번 94세민전은 외대의 지위를 높이고 역할을 충실히 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세계가 이곳에  
지난 21일(토)부터 22일(일)까지 어린이 대공원에서 20여 개국의 음식, 풍물, 사진 등이 전시되어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 인터뷰—세민전을 관람한 학부모·동문·대사를 만나



강 인 숙

〈윤나영(시하·영여 2)의 어머니〉

—세계민속예술제(세민전)를 관람하신 소감은?

—이번에 세민전을 세라레나 관람했다. 제 딸이 출연을 한다니 자원이 여러차례 관람을 할 것 같다. 처음에는 제 딸만 눈에 들어오더니 보수록 학생들도 너무 잘하고, '고생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름다운 열심과 준비한 것 같아 보기 좋았다.

—어느 팀의 공연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모두들 잘했지만 노래로 전 우리나라의 공원이 제일 인상적이었다. 학생들의 몸짓 하나 하나가 씩씩하고 온몸을 다하는 것이 보기 좋았다. 나영이 이번에도 같이 관람하고 나서 특같은 얘기를 했다.

—관람하고 나서 세민전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인류평화와 남북화해를 위한이라고 내 세민전의 슬로건과 같이 화합이라는 부분을 많이 공감했다. 또 한가지로 그전까지 잘 몰랐던 다른 나라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고 친밀감이 들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지역의 나라에 대해 많이 몰랐는데 공연을 보고 나서 친밀감이 많이 바뀌었다.



고영석<동양·중국어 83>

—세민전을 관람하신 동기는 무엇입니까?

—세민전은 보의UN총회의 더불어 외대를 대표하는 종합적 행사이다. 더욱이 세민전 관람은 세계대회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드문 기회라고 생각된다. 게다가 세민전은 한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부활된 행사여서 기념적이라고 할 수 있고 다가오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라 이번 세민전은 많은 의미를 품고 있기에 행사장을 찾게 됐다.

—세민전을 관람하시면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병행하면서 준비하기에 벅찬점이 있었지만 여러가지 미숙한 점이 보였다. 우선 학과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탐방 부대에서 공연한 사람이 너무 적은 부대에 소수 사람의 공연은 조화되지 못했다. 또한 자세한 못하더라도 각 나라의 공연 사진과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고 본다.

—과거 세민전을 회상한다면?

—과거 세민전은 외대인의 숙원이 아니었다. 각국의 대사들이 공연을 축하하며 관람했고 방송국과 신문들도 있다보니 보도에 열을 올렸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한마디로 세민전은 외대생의 자랑이었다.



유인인 이즈로<루마니아 대사>

—세민전을 관람하게 된 계기는?

—제각각 세민전에 구경했다. 또한 올해 세민전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사관을 방문해서 우리나라의 민속음악, 춤, 음식 등에 관해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학교도 멋진 방문객이었다. 루마니아 학생들을 직접 많이 만나서 좋은 대화를 가져왔다.

—세민전 관람 소감은?

—대사로서 무척 만족한다. 루마니아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무척 고무적이다. 우리 대사관에서는 8명이나 관람했다. 모두들 무척 기뻐한다.

—관람한 후 아쉬웠던 점은?

—노래는 92년에 비해 무척 향상됐다. 너무 잘보여 주었다. 발음도 좋았다. 그러나 춤은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이 조금 미숙해야 더 멋있지 않았습니까?

—외대인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단순히 언어만을 공부하지 말고 우리나라를 더욱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공부했으면 한다. 남의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무척 힘들지만 또한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어를 배우는 대학이 있으나 그리 많은 나라의 언어를 배우지는 않는다.



더욱 아름답게  
각국의 다양한 의상만큼이나 이에 따른 분장 역시 각양각색의 모습을 띄었다.



선남 선녀  
어느 나라의 의상을 입어도 잘 어울리고 조금은 어색한 복장에도 잘 적응해내는 외대인의 모습은 세계인으로서의 긍지를 갖을 수 있었다.



백만장년 앞에서  
지난 27일(금)에서 29일(토)까지 광주 조선대서 열린 한총련 출범식에서도 세민전이 공연해 많은 찬사를 받았다.



한시의 여유도 없이  
무대에 오르기 전 설레이는 마음을 기다리고자 대기실에서도 끊임없이 연습을 하는 모습.



토인이 돼  
우리에게 아직은 낯선 아프리카 토인 분장을 한 모습. 웃음까지 벗은 열정이 세민전 성사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제작 : 사진부







□영화평 — '제르미날 (Germinal)'



한편의 영화를 제대로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영화는 많은 사상과 정서를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 표현은 사실로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야 다렌 (Maya Daren)'의 말리쉬 영화제는 조형미술, 무용, 연극, 음악, 시의 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중 영화에 있어서 문화의 유대는 영화의 탄생 이래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며 수많은 문학작품들이 영화로 다시 태어났다.

'제르미날'도 그런 수많은 영화중의 하나로 프랑스 자연주의 문화를 대표하는 에밀 졸라의 동생인 에밀 졸라를 '마뉴엘'의 형으로 알려진 클로드 베리 감독이 영화로 만든 작품이다.

영화는 19세기말 프랑스 제2제정시대, 북부 지방의 광물광산과 그 탄광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파업을 배경으로 전개된다. 숀건이 상사를 치고 해적된 전직 기계공 에밀레 뎀페(르노)가 탄광에 들어오게 되어 광부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

## 검은 석탄빛 영상 암울한 광부의 현실 상징

된다. 막장인생을 시작한 그가 본 것은 가난, 알콜 중독, 난립한 경쟁, 사발과 같이 음탕하거나 투쟁 마유(레리드)도 빠르다(유)와 같이 니그러운 사람들과, 그러나 가난으로 너무나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들과 가진 자와 못가진 자, 부당한 부와 성실한 빈곤의 사이에 존재하는 더럽고 추한 자본의 논리 뿐이다.

비참한 막장생활로 고통받는 탄부들에게 에밀레는 낯은 세상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용기를 불어넣고 이제 조직화된 노동자들의 분노와 함성을 거대한 파업투쟁으로 분출되도록 할라고 한다.

파업은 장기화되어 결국 탄부와 죽음이 더해지는 가운데 내부의 배신과 음모, 분노한 노동자들의 가슴에 가늘어진 검은 군대의 총구앞에 하나둘씩 쓰러져가고 노동자들은 다스림 작업장으로 돌아가게 되고 만다.

이 영화를 지배하는 색은 탄광은 특유의 검은 석탄색이다. 그것은 마치 자본의 착취와 억압속에서 인간 이하로 살고 있는 노동자들의 암울한 현실을

상징하기라도 하듯이, 그들의 비참한 삶을 더욱더 비참하게 보여주며 시종 화면을 무겁게 압도해 나간다.

파업은 죽음과 끝없는 절망과 좌절만을 남긴 채 실패로 끝나고 주인공 에밀레는 이두어지지 못한 슬픈 사람의 종말과 함께 탄광을 떠난다.

'제르미날'은 착취와 억압이 있는 곳에는 민중들의 투쟁이 있기 마련이라는 보편의 진리를 보여준다. 프랑스 영화사상 최대라는 2백30여원이라는 제작비와 1천여명이 넘는 탄부들을 동원해 파업투쟁과 파업들과 정의를 숭고함을 처절히만들 생생하고 진지하게 영상화하는 데에 성공했다. 그러나 거기에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하였다.

약 1세기 전 남의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 세계 최대의 노동환경과 세계 제일의 산업재해율을 자랑(?) 하는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현실과 다르지 않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 경 식

<정체·신방 3>

□서평 — '축소지향의 일본인'

## 반도와 열도의 문화차이 조명

### 축소지향의 일본인



일본어를 전공으로 삼았다고 마음먹은 뒤 여러 일본인과 일본 문화에 대한 책을 읽어 보았지만 이이명씨의 '축소지향의 일본인'에서 그동안 착안하지 못했던 '민족성에 기인한 문화차이'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였다.

일본어를 배우기 전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사이에 문화적 공통점이 대단히 많아서 말을 배우기도 쉽고 그들을 이해하기도 쉬울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다. 하지만 막상 많은 배우고 조금씩 그 속에 녹아있다는 일본문화의 민족성을 열도게 되니,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게 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외견상으로 보아 비슷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거나, 쓰이는 말의 대부분이 우리말에 어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 철저하게 한국인의 시각에서만 본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지적하는 일본인 스스로 자신들 문화가 갖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배제한 서양문화와의 비교를 통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도이 다케모토가 '이마에의 구조'에서 '일본의 특유'의 어휘라고 확신한 '이마에'라는 말과 같이 혹은 한국에서 보편화된 음식인 김, 미역 등의 해초류를 제에서 일본인들이만 먹는다고 주장한 것 등은 잘못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나는 한국과 일본의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고 할지 몰라도 절대로 갖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유교 문화권의 예를 많이 들지만 우리나라나 중국만큼 생활속에 유교의 흔적이 그리 많지는 않다.

다시말해서 한국 사람이 된

로 감당해 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내부 건축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 집단주의의 감정과 약점을 잘 보여 주었다고 하였다.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생각하면서 ' 과연 한국인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을까' 반문에 본다. 일본의 우수한 전통의 장(長)과 단(短)에서 접하는 우리의 자세가 한국에서 건전한 우리의 조상이라면, 일본문화의 원류가 한국이라면, 그런 과연 언제부터 현실의 확연한 문화적 차이가 생겨났을까?

지구촌을 누르고 있는 개방된 국제사회에서 이제 과거와는 반대로 일본을 교훈삼아 우리를 반성해 볼도 바람직 하지 않을까.

우리도 우리 교육의 정신을 가다듬고, 바깥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어 우리 나름의 것으로 사회에 내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것에 대한 사랑이 우선 되어야 하겠다. 철저한 이해와 연구 없이 연재가 우리 교육의 식인 김치마져 자기배 것이라 주장하는 일본인들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우스운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렇듯 일본의 문화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은 또다른 우리와 연관된 연구를 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좋아했던 조상들의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는 그 평범한 진리를 깨닫고 더불어 잘 사는 조화지향의 한국인의 모습을 구현해보고자 저마다 스스로의 노력을 배가해야 하지 않을까.

공 경 제

<동양·일본어 3>

□수필 — '세계민속예술축전'을 마치고

## 땀과 노력이 믿음으로 열매맺은 6개월

6월 1일(수) 밤 11시 서초동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는 7백여명의 용인캠퍼스 학생들이 시도를 격려하며, 혹은 자축하며 성공적으로 끝난 세계민속예술축전(세민전)의 마지막 막을 내리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 '맛있었습니다' / '리'는 인사말을 건네며 행사장 밖으로 나오는 가슴속엔 쉽게 말할 수 없는 미련과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풍물패, 춤패, 노래패가 한때 어우러져 부대를 꽂아 주며 신명나게 연주했던 코끼리가 끝나면서 솟대에서 솟아나는 조국통일이 새겨진 플래카드.

지난 6개월간 세민전을 더욱 알차게 만들기 위하여 학생들과 자원교류를 실시시키고 우리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남북의 이질감을 해소하여 갈라진 조국이 하나된 그날을 앞당길 보지고 모인 각자의 자부심을 주셨다. 그들이 흘렸던 땀과 노력을 생각하면 복원의 불순한 의도 등을 이유로 불허시킨 남북 편지교류가 너무도 아깝다.

인젠가 회의를 준비할 때의 일이다. 비록 일장에서 회의는 잘 준비되지 않고 시간은 시위를 떠난 활기찬 빠르게 흘러간 갔으나 자신은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요즘의 학생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외면하고 있고 어쩌면 이토록 부끄러워할 수 있는나고 후련한 하던 중 어떤 학생이 왔다는 복원의 학우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읽게 되었다.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만나보지도 못한 복원의 학우를 그리며 너무도 소박하고 순수하게 꿈꿔온 한자 한자 적이 내리갈 편지글에는 그들의 안부도 묻고 있었고 우리들의 대하생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통일이 되어 이따금씩 남부시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다는 내용으로 끝나는 그 편지를 읽고 나니 외대생을 믿지 못하고 한개하지 못하던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고개를 할 수 없었다.

최 철 용

<사회·무역4>

□시

##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바뀌는 계절마다 그 많은  
꽃들이 피고 진다고 해도  
발밑까지 한 송이도 보이지 않고

이 땅에서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물마다 또 많은  
노래가 맴돌아 해도  
아직도 끝내지 못한 노래일뿐

하늘이 저렇듯 푸르른 것도 죄악입니다  
바람이 저 혼자 흐르는 것도 배신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고개를 들면  
가로막힌 서러운 상처만 놓여  
시름하는데

그 노래를 마저 부르고 싶습니다  
그 꽃을 마저 피우고 싶습니다

조 현 우

<사범·한국 3>

포항제철 매세지 홍강편



끝없는 도전이 이어지는 곳, 포항제철 -  
포항제철은 세계적인 철강회사로 부상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국제제철, 건설 및 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 이동통신, 경영경영연구 등 미래지향적인 사업영역에서의 도전으로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향해 끊임없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단 장

서훈캠퍼스에 이어 용인캠퍼스에도 화하단을 가꾸는 등의 단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여름의 햇살이 땀방울을 흘리며 일하는 이주대원들의 모습에 화한 3주세라는 말이 실감난다.

<사건부>

## 도전의 여행을 떠나자!

대학인에게 있어 방학은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 떠날 수 있는 절호의 시간, 대학인의 특권 -  
무한한 가능성은 도전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때만이 찾을 수 있는 것. 이번 여름방학에는 자신안에 숨어있는 가능성을 찾아 도전의 여행을 떠나 보시라.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땀을 흘려 보는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또다른 자신에게 도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매니아가 되어 컴맹이라는 장벽을 확실히 허물어 보는 것도 또 평소 높은 산과 같았던 학문을 정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을 하든 끈기있게 여름의 시간을 젊음의 도전으로 불태워 보십시오.

자유로우면서도 방향감각을 잃지않는, 지혜로운 도전의 계획을 세워 실천해 본다면 방학이 끝난 즈음, 여러분은 자신만의 보물을 얻은 채 당당히 캠퍼스를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철북에서 통신북으로